

광주시 미세먼지 대응 위기관리 전담팀 구성

17개 부서 20명...기관별 협업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 마련 경유차 폐차·천연가스 버스 보급 등 수송분야 감축 총력전

광주시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대응 위기관리 TF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도심의 경우 중국 등 외부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뿐 아니라 차량에 의해 자체 생산되는 미세먼지·초미세먼지도 많은 지적에 따라 광주시가 자체 전담팀을 꾸리게 됐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자치구, 사업소 등 17개 부서 20명으로 구성된 TF팀은 그동안 각 부서별로 추진해 온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점검하고 기관별 협업시스템

을 통해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광주시역 대기오염 발생량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 수송분야의 미세먼지 감축 정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한다.

광주시는 오는 2030년까지 초미세먼지를 30% 줄이기로 한 '2030 미세먼지 저감 추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829억원을 투입해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에는 대당 500만원을 보조하고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는 지난해보다 3배 늘어난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광주시 집계 결과 그동안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통해 5만8392t 상당의 온실가스(CO2)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또 미세먼지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신규택지나 공단에 대기측정소를 확대하고 취약지역용 이동측정차량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2020년 21µg/m³, 2030년에는 유럽 수준인 18µg/m³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유럽 주요 도시 미세먼지는 ▲파리 18 ▲도쿄 16 ▲런던 15µg/m³가량이다.

앞서 광주시 국제기후환경센터가 지난해 12월 18일 전남대학교 후문 도로변과 두암동 주택가의 미세먼지·초미세먼지를 분석한 결과, 차량 통행이 잦은 전남대 후문 도로변에서 훨씬 많은 양이 검출됐다.

차량 통행량에 따른 미세먼지·초미세먼지 검출량을 비교하기 위해 시간대 별로 측정된 이번 조사에서 도로변의 초미세먼지가 주택가보다 최대 25µg/m³(오전 6시)이나 많았다. 도심권의 도로변을 달리는 차량에서도 상당량의 미세먼지·초미세먼지가 발생했다.

한편 광주지역 주요 대기 오염원은 자동차(47%), 건설장비 공사현장(36%), 가정주요 도시 미세먼지는 ▲파리 18 ▲도쿄 16 ▲런던 15µg/m³가량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민주당 광주시당 '당원명부 유출' 의혹 자체조사 결과 곧 공식 발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 조만간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30일 "당원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단 활동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며 "이르면 2월 초순께 광주시당의 입장을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공식발표에 앞서 시당은 관련 조사 내용을 31일 지역위원장 간담회와 다음달 2일 상무위원회를 통해 보고할 예정이다.

시당은 지난 10일 시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꾸려 당원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다.

당원명부 관리를 담당하는 시당 사무처장과 시당 사무국장, 광주지역 8개 지역위원회 담당자를 상대로 당원명부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해서 살펴봤다. 또 이들이 당원명부 관리에 사용한 컴퓨터를 확보해 당원명

부 관리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등도 점검했다.

앞서 민주당 중앙당도 "온라인을 포함해 신규 권리당원의 명부를 조직국에서 취합한 후 엑셀파일로 입력 관리하고, 복사할 경우에도 중앙당 승인을 거쳐도록 돼 있다"며 "그럼에도 유출 의혹이 불거진 것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발백배할 사안이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중앙당은 유출 의혹이 불거진 직후 사무총장 명의로 전국 17개 시·도당에 공문을 보내 철저한 당원 명부 관리를 지시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당 당원명부 유출 의혹은 광주시장 출마 예정자인 A씨가 이달 초 자신의 이름으로 수신자의 실명을 언급하며 신규당원을 포함한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여름 모기 줄이기' 조기 방역 4월말까지 하수구 등 취약지 798곳 방역활동

광주시는 지근지근한 여름 모기를 줄이기 위해 올해 초기에 방역 활동을 한다.

광주시는 30일 "해빙기 모기 등 유충 방제를 위해 공중화장실, 하수구, 정화조, 웅덩이 등 취약지 798곳을 중심으로 2월부터 4월 말까지 조기 방역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활동에는 자치구 방역단 71개반 196명과 소독장비 1002대가 투입된다.

겨울에서 봄철로 이어지는 해빙기는 해충의 저항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

기로 해충 박멸의 최적기다. 모기 유충 1마리를 방제하면 성충 수백 마리를 박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향아리나 화분 등 물이 고인 인공 웅덩이, 나무 구멍과 풀밭, 생활 쓰레기 등을 모두 치워 환경 개선을 통해 모기 발생 밀도를 줄여야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소독무 대상 시설인 전체 면적 300㎡ 이상 음식점, 병원, 백화점, 학교, 공동주택 등은 정기적인 청소와 소독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조성철 전문위원 지역발전위원회 평가위원 위촉

조성철(사진) 문재인 정부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이 최근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평가위원에 위촉됐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정부 각 부처의 지역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기구다. 참여정부 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이름으로 활동했다.

조성철 선임 위원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이 퇴보했다"면서 "막중한 임무에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함평 출신인 조성철 평가위원은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해 사회를 보는 새로운 눈을 얻은 후, 4년 내내 학내 민주화 운동을 참여했고 이철규 열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았다.

광주경실련, 우리민중서로돕기운동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했다.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광주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TÉLÉSIS Paris

텔레스이스는 지적인 능력으로 자기목적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파리 패션 위크 데뷔와 함께 패션문화거리 마레지역에서 활동했던 텔레스이스는 25년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정된 트렌드에서 벗어나 로맨틱 감성을 바탕으로 과장되지 않는 디테일 속에서 Chic & Unique한 자기 표현을 연출합니다.

TEL. 062 223 191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6-11 ACC디자인호텔 1F

-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졸업
- 파리 ESMOD 의상학과 Styliste 전공
- 파리 FLEURIMON 메이크업 전공
- CLAUDE MONTANA 디자이너
- LUC SAINT ALBAN 프리랜서
- BALANCIAGA 프리랜서
- PRET A PORTER PARIS Atmosphere(2002~) 전시 다수참여
- 2002~TELESIS 총괄디렉터 & 브랜드 운영

광산구 풍영정천 'IoT리빙랩' 수질정보 공공 빅데이터 활용

광주 광산구가 지난해 11월 10일 설치·개통한 '풍영정천 IoT리빙랩'이 손조롭게 작동하고 있다. 광산구는 '풍영정천 IoT리빙랩'이 발송한 데이터를 가공해 도심 하천 수질개선 빅데이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30일 광산구에 따르면 '풍영정천 IoT리빙랩'은 현재 수소이온 농도(pH), 용존산소(DO), 중금속 유입을 감지하는 전기전도도, 수온 측정 결과를 전송하고 있다. 풍영정천 하남대교 밑에 설치한 계측기에서 보내는 정보는 전용 어플을 설치한 스마트폰과 구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다.

광산구는 수집한 시간별, 일별, 월별 수질데이터를 축적해 공공 빅데이터 분석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연간 수질오염 평가치를 확보하고, 집중 호우 등 특정 조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풍영정천 IoT리빙랩'은 수질 오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6기 생생도시 아카데미 수강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구현한 것.

'풍영정천 IoT리빙랩'이 수집한 정보는 24시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풍영정천 IoT리빙랩' 가동 후 현재까지 풍영정천에서는 인근 산단 업체의 오폐수 무단방류가 계속되지 않았다.

/최승렬기자 srchoi@



한복 입은 AI 로봇 '소피아' 인공지능(AI)로봇 '소피아'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소피아에게 묻다' 콘퍼런스에서 '로봇의 기본 권리'에 대해 말하고 있다. 왼쪽은 한스 로보틱스의 데이비드 헨스 CEO,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연합뉴스

무안공항 대중교통 접근성 높인다 광주·목포 버스노선 증편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광주와 목포를 연결하는 대중교통 노선이 늘어난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광주~무안국제공항 고속버스 노선이 기존 하루 2회에서 4회로 증편되고, 목포~무안국제공항 고속버스 노선도 하루 4회 운행된다.

이번에 증편·신설된 노선들은 무안~제주 간 항공편 운행 시간에 맞춰졌다.

광주~무안공항 노선 운행 시간은 광천터미널(유스퀘어)에서 오전 5시와 6시, 오후 5시40분과 저녁 7시40분에 출발한다. 무안공항에서 유스퀘어 노선은 오전 6시30분과 7시40분, 오후 7시40분과 저녁 9시20분에 출발한다. 이 가운데 2회는 김대중컨벤션센터와 송정역을 경유한다. 광주~무안공항 간 고속버스 요금은 3800원이다.

목포~무안공항 노선 운행시간은 목포터미널에서 오전 5시20분과 6시20분, 오후 6시30분과 저녁 7시40분에 출발하고, 무안공항에서는 오전 6시45분과 7시40분, 저녁 7시40분과 9시20분에 출발한다. 무안 정계와 무안터미널을 경유하며, 요금은 4100원이다.

전남도와 금호고속은 그동안 무안공항 이용객들이 항공편 시간과 맞지 않아 공항에서 대기하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이용객 추이와 국제선 비정기 운항 시간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증편 운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호남선 KTX 2단계 노선 무안국제공항 경유 확정에 따라 접근성을 보다 개선해 이용객 교통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에너지관리공단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90% 융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명만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5,000명 이상)

NAVER **해가온에너지** 검색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